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9월(제85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한국, 중국, 태국, 인도, 웨일스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 사토 지사 취임 축하 예방 오이타현



세계 여러 나라·지역의 재외공관장(대사, 총영사 등)이 지난 4월 28일에 새로이 취임한 사토 기이치로 지사를 예방해 취임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이타현청에서 이루어진 예방에서는 상호 지역의 현황과 향후 교류 추진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기념품을 전달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400년 전부터 미래를 생각한 사이키의 새로운 도전  
🔥 '우라 100' 프로젝트 추진 사이키시



콘셉트 로고 메인 디자인 공개!

사이키시에서는 '사이키판 SDGs(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실천 400주년을 맞아 산, 강, 바다의 혜택을 즐기는 '우라 100(浦100)' 관광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우라 100'이란 '100년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물가(우라)를 남기기 위한 100가지 관광 행동'을 만들고자 사이키시 관광 협회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물가가 있기에 사이키를 다스릴 수 있고, 산이 있기에 물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아름다운 산과 강, 바다가 있는 사이키는 1623년, 사이키번(에도 시대의 행정 구역)의 수산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삼림 자원을 남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선구적인 움직임이 있는 지 400년이 지난 오늘날, 사이키시 관광 협회는 미래의 100년을 대비하고자 '100년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물가를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결과 산과 강, 바다라는 자연의 순환을 관광 자원으로써 활용하여 그 혜택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로 얻은 수익 일부는 산, 강, 바다의 보호 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오이타현 소식

지난달 오이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 JR 히타히코보시선 BRT 버스 운행 개시...지역 활성화 기대
- 오이타현, 인구 10만명당 외국인 유학생 수 전국 3위(2022)
- 히메시마 본오도리, 4년 만에 어린이 여우 춤 선보여
- 벳푸, 외국인 대상 대나무 공예와 쪽 염색 체험 인기
- 오이타현 오사카 사무소, 관련 식당에 가보스 제공
- 혼바쓰루사키오도리 대회, 49년 만에 국도에서 개최
- 쓰쿠미, '오셋카이 전병' 판매 개시...사투리 포장지 사용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9월(제8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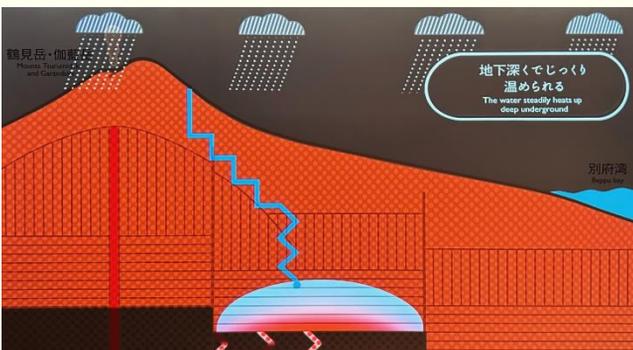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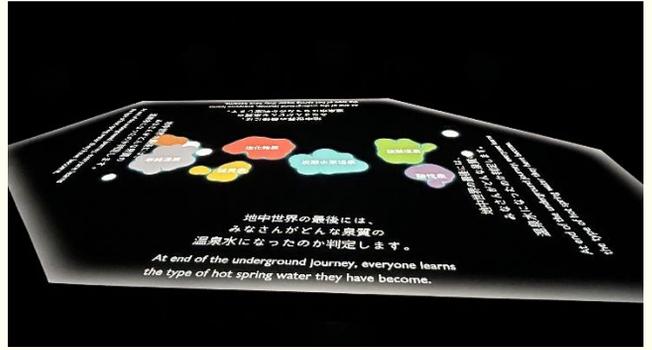
벳푸 온천지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공간

## 지옥 온천 뮤지엄 벳푸시

2022년 11월, 한 번쯤 들어 본 적이 있을 ‘바다 지옥’ 등이 있는 벳푸 간나와 온천 지역에 ‘지옥 온천 뮤지엄’이라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생겼다. 온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옥’이라 불리던 이곳이 어떻게 많은 사람이 찾는 온천지가 되었는지에 대해 예술성이 높은 전시관에서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이곳에 취재를 다녀온 감상을 전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뮤지엄을 더욱 즐기기 위해서는 방문하기 전에 온천의 형성 과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 두는 것을 추천하므로 잠시 설명하겠다! ‘온천’이란 비나 눈이 지면으로 스며들어 여러 온천 성분을 흡수하거나 다양한 원인(마그마 열, 지하수, 염분 등)으로 인해 데워진 후 지상으로 나온 것을 의미하며, 이 과정은 약 50년이 걸린다고 한다. 뮤지엄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빗물이 되어 전시관을 지나며 온천이 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 S.1 하늘로부터의 선물 空からの贈りもの

첫 번째 전시관에서는 빗물이 내려 지면에 스며들어 가는 과정을 프로젝션 매핑(빔프로젝터를 이용해 영상을 실제 벽이나 사물에 투사하는 것)으로 소개한다. 조명이 꺼진 어두운 방에서 영상을 시청하므로 어느 각도에서도 실감나게 볼 수 있지만, 일본어와 영어 자막만 표시되는 점이 조금 아쉬웠다. (내용이 궁금하다면 한국어 팸플릿을 참고하자!)



## S.2 50년이나 되는 지중의 여행 50年もの地中の旅

뮤지엄에서 가장 넓은 두 번째 전시관에서는 빗물이 땅속에서 여러 온천 성분을 흡수하는 과정을 세계의 방을 통과하며 체험한다. 붉은 천, 알록달록한 조명, 거울 등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표현한 50년의 땅속 여행을 체험하고, 입장 시에 주어지는 용지에 도장을 채우는 스탬프 갤리를 즐길 수도 있다.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9월(제85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S.3

## 사람과 문화의 만남 人や文化との出会い

세 번째 전시관에서는 땅속 여행을 끝내고 지상으로 솟아오른 온천을 어떻게 활용하여 '지옥'이라 불리던 간나와·벳푸 온천 지역을 오늘날의 온천지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영상으로 소개한다. 목욕탕을 연상케 하는 전시관에서 상영이 끝나면 스크린이 올라가고 창문이 보이는데, 그 너머의 거대한 온천 증기가 상당히 인상적이니 꼭 보길 바란다.



S.4

## 지금 그리고 미래로: 지옥 축제 전시 今、そして未来へ

네 번째 전시관은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간나와·벳푸 온천 지역 지옥 문화의 미래를 생각하는 기획 전시를 여는 곳으로, 올해 11월 30일까지는 '지옥 축제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다.(2021년에 열린 축제에서 사용된 의상과 예술가 히로카와 다마에 씨가 풍토 연구를 위해 수집한 물건 등을 전시)



## 스탬프 랠리(도장 찍기) スタンプラリー

뮤지엄에서 가장 즐거웠던 건 두 번째 전시관에서 잠깐 언급한 스탬프 랠리였다. 전시관 곳곳에서 다양한



온천을 상징하는 색깔의 온천 증기 모양 도장을 찾아 주어진 용지에 찍은 후 통과하면 내가 어떤 수질의 온천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로, 어떤 색과 모양의 도장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자신만의 '벳푸 마을 풍경'을 완성할 수 있어 보다 즐겁고 친근하게 온천지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다. '보는 지옥'을 관광하기 위해 수도 없이 찾은 벳푸지만 처음으로 자세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유익했으며 색다르게 즐길 수 있어 좋았다.



## 지옥 온천 뮤지엄 (地獄温泉ミュージアム)

- 주소: 別府市鉄輪321-1(〒874-0045)
- 문의 전화: 0977-84-7858(일본어 대응)
- 운영 시간: 09:00~18:00(입장 마감 17:30)  
(※연 4회 부정기 휴무)
- 입장료: 성인 1,500엔 / 소인(초,중학생) 1,000엔

기사작성 : 교류원 노지영(pu-no314@pref.oita.jp)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9월(제85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 노지 in 오이타

30화

안지와  
홍이  
1화

노지 친구 첫 등장!



고등학교 1학년때, 학교 UCC대회에  
반 친구들과 함께 참가한 적이 있다.

같이  
UCC  
찍을 사람?

드르륵



문상준대



당시 나는 감독을 맡았고  
친구 안지는 주인공 역할을,  
친구 홍이는 내레이션을 맡았는데



★ 당시 감독의 일

: 대본 작성, 출연자 섭외,  
스케줄 조정, 촬영일 공지,  
장소 물색, 촬영,  
디렉팅, 편집...

며칠에 걸쳐 학교에서 틈틈이 촬영하고  
우리집에서 녹음을 하며 꽤나 친해졌었다.

촬영



오케이  
컷!

녹음



좋아!  
그대로 가자!

2학년이 되며 나는 문과를,  
둘은 이과를 선택하며 다른 반이 되었지만



3학년 때 토요일마다 급식을 함께 먹으며  
서로의 대학 합격을 축하해 주었고



정말  
기쁘게

친구

이것들이...

피자나...

흥허...



이

26 화에 등장했던  
친구 1, 2 이기도 함

졸업한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하며  
나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면 꼭 만나러 와주는  
그런 친구사이로 지내고 있다

계속

- ① 부산 소재 대학교 전학
- ② 첫 자취 시작

우리가  
만나러  
갈게



이 안지와 홍이와  
더욱 친해진  
계기가 되어준  
그때의 UCC!